

국제표준화 회의동향



# 3GPP2 OP/SC 회의 요약

이봉국

TTA 표준본부 전파·방송표준팀장

## 1. 회의개요

- 일시 : 2000년 7월 24~25일
  - 7월 23일 : 지난번 재정감사회의에서 결정한 재정회계 관련문서 검토를 위한 재정회계 감사회의 개최 및 회의의제 조정을 위한 OP 수석대표 회의
  - 7월 24일 : 기관참가자(OP) 회의
  - 7월 25일 : 운영위원회(SC) 회의
- 장소 : 중국 북경 King Wing(京瑞)호텔 회의장
- 참가자 : 위규진, 김영균, 박병재(삼성전자), 김윤관, 이희정(LG), 장규상(KTF), 유인호(현대), 이동명(모토로라코리아), 이봉국(TTA), 명종욱(퀄컴 코리아), 미국, 일본, 중국에서 80여 명 참가

## 2. 주요 회의내용


- HDR 표준 작업승인
  - 1X 이후에 1X EV(Evolution)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
  - 1X EV Phase 1 : 1X EV-DO(data on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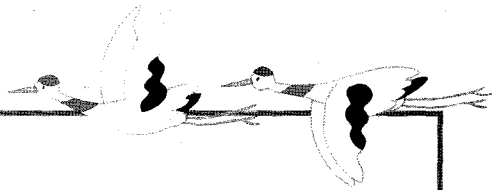
2000년 9월 표준화 완료

1X EV Phase 2 : 1X EV-DO(data voice)

2001년 5월 표준화 완료

- 미국측은 1X EV Phase 1을 HDR 위주로 작업하여 금년 10월 개최되는 ITU-R 회의에 제출함으로써 ITU-R 표준으로 만들 고자 하나, 제출전에 각국 표준화 단체의 승인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진에 문제가 있음(미국은 초안 상태로 제출하고자 함).
- 중국은 LAS-CDMA(Large Area Synchronize)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지난 3월에 3GPP2에 제안하였으며, 이는 노키아 모토로라에서 제안한 1XTREME과 함께 1X EV Phase 2에서 표준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제안함.
- 중국은 LAS-CDMA를 전략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미국에 LinkAir라는 회사를 설립하고(20명), 중국에 100여 명의 기술자를 투입하여 Chip 제조에 주력함, 이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각국의 시스템 제조업체를 7월 26일에 초대하여 중국 현지에서 시연회를 개최함 (우리나라 삼성 김영균 전무, LG 최용일 부사장 참관)

- 중국 Unicom의 cdma 도입이 애매한 상황에서 중국이 LAS-CDMA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대응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MWIP가 새로운 MRP로 참여함(3GIP는 3GPP2에 관심이 없다는 반응임). 표준화기관의 대표와 MWIF의 대표들이 간단한 서명식을 함. TTA에서는 전파·방송표준팀장(이봉국)이 사무총장을 대리하여 서명함.
- 유럽은 IMT-2000 단말기의 유럽내 공통규격에 의한 판매, 유통을 위하여 '99년 EC 지령(Directive/99/5)에 따를 것이며, 이러한 작업에 3GPP2도 같이 참여할 것을 요청(미국은 개별 업체별로 참여중이나, 이러한 표준규정을 미국내 법으로 적용할 것 인지에 대하여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임) : 국내 단말기 제조업체 및 전파연구소의 참여가 요망됨. 



### 일본, 디지털가전 분업 확산

일본 가전업계에서 주요 디지털가전 제품을 자체 개발, 제조하지 않고 상호 위탁하는 분업(分業)이 확산되고 있다. 8월 30일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히타치제작소, 미쓰비시전기 등이 방송위성(BS)디지털방송 수신튜너를 마쓰시타전기산업에서, 샤프가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 녹화재생기를 파이어니어에서 조달기로 하는 등 동종 경쟁사간에 각사가 내세우는 디지털가전 제품을 상호 공급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성숙 분야와는 달리 성장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 상품 개발, 생산의 독자노선을 내세워 온 일본의 주요 가전업체들이 이처럼 디지털가전에서 위탁생산 등의 분업에 적극 나서는 것은 반도체 등 핵심 부품 개발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막대한데다 제품이 다양하고 제품사이클도 짧아 1개 회사가 모든 제품을 전개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각 업체는 몇 개 전략제품에 경영자원을 집중해 나가게 된다. 히타치, 미쓰비시전기, 파이어니어 등 3사는 BS디지털 방송 튜너의 생산을 마쓰시타전기산업에 위탁기로 했다. 마쓰시타는 자사 판매용과 기본사양은 같지만 외관을 약간 변경한 제품을 공급한다. 3사는 튜너를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다. 산요전기는 튜너를 도시바에 위탁생산한다. BS디지털 튜너는 양방향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디지털가전의 핵심이지만 IC칩 개발에만 100억 엔 이상의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간다. 따라서 히타치 등 3사는 자체 개발보다는 외부 조달이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 위탁생산을 결정했다. 비디오테이프를 대신할 차세대 기록매체 DVD에서는 히타치가 DVD 녹화재생기를 마쓰시타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히타치는 당초 DVD 녹화재생기를 자체 개발할 방침이었으나 「제품을 적기 투입하지 못할 경우 위험이 크다」고 판단, 캠코더의 개발에만 전념기로 했다. 히타치는 업계 최초의 DVD 캠코더 「DVDCAM」을 독자 개발중인데 이 제품을 다른 업체에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편 샤프도 DVD 녹화재생기를 파이어니어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제품 규격이 다양한데다 보급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외부 조달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